

L.A.연합감리교회 장학재단



(120주년 예배 후 - 2024년 3월 10일)

LA연합감리교회는 1999년에 기부 재단을 설립했으며, 이 재단은 2024년까지 총 144만 달러 규모의 장학 재단으로 성장하였다. 매년 이 기금의 이자는 장학금으로 사용되며, 2024년 현재, 약 280명의 학생에게 50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 기금은 캘리포니아-태평양연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2024년에는 23명의 다양한 학생들을 지원했으며, 이들 중에는 재정이 어려운 목회자의 자녀, 북한 탈북자 자녀, 멕시코, 몽골,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의 선교지 학생들, 그리고 교회 소속 자녀들이 포함되었다. 최근 몇 년간 LA연합감리교회는 매년 1만 달러를 CST에 기부해 왔으며, 2024년까지 총 6만 1천 달러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LA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이자 CST 동문인 이창민 담임목사는 장학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한국과 CST에서 학습하는 동안 많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훌륭한 학생이어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것이 많은 기부자들의 관대함과 헌신 덕분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LA연합감리교회는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국 교회로, 항상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진 교회였다. 장학금 재단의 설립은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한 많은 교인이 생명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그 보험금을 장학금 기금에 기부하도록 지정했다. 교회는 CST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 본토의 한국 교회 공동체의 '장자 교회'로서 계속해서 미래의 교회 리더들을 양성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CLAREMONT
SCHOOL of THEOLOGY